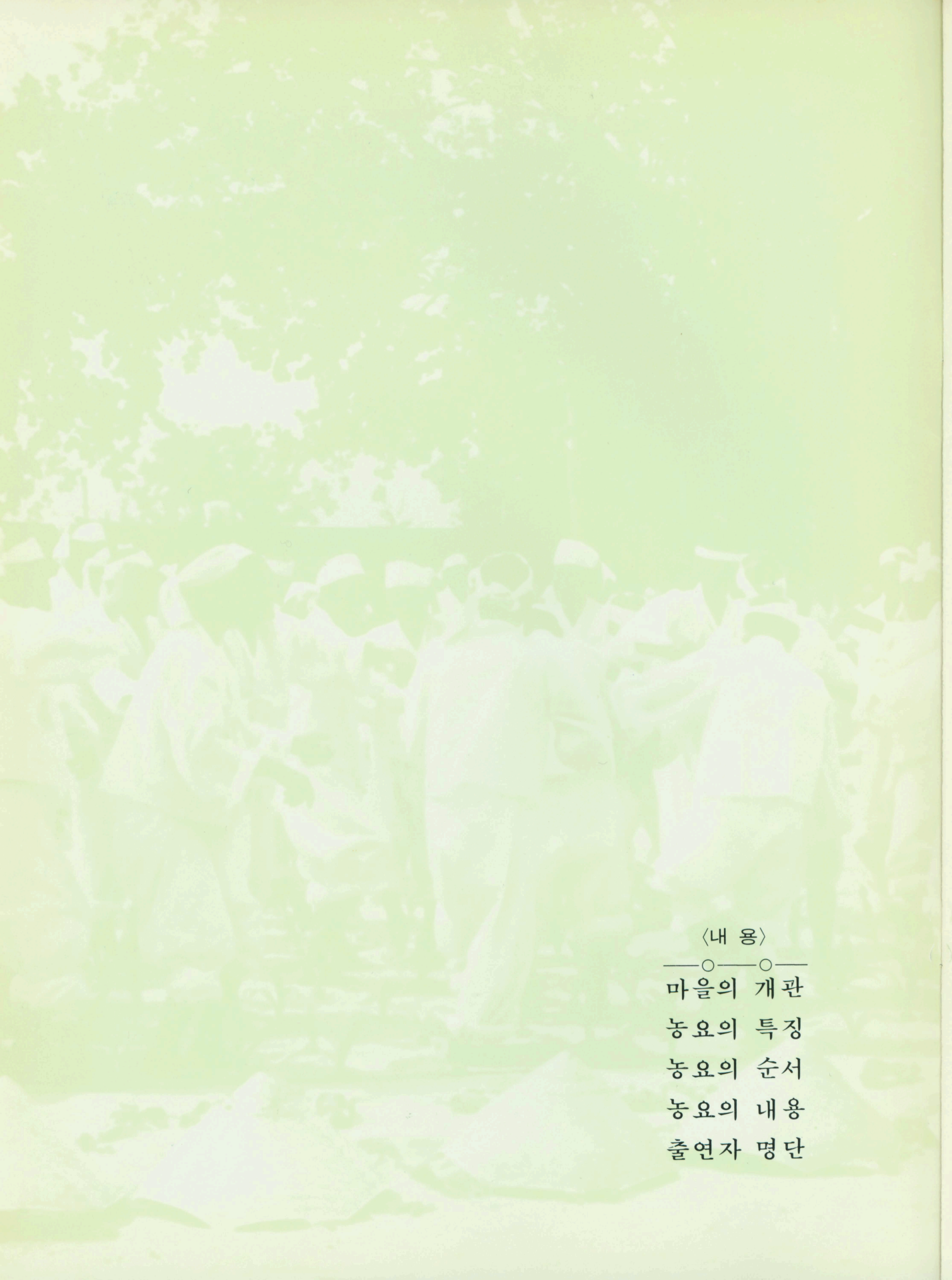


제26회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
예천공처농요

1985년 9월 19일~20일
강원도·강릉종합경기장



경 상 북 도



〈내 용〉

—○—○—
마을의 개관
농요의 특징
농요의 순서
농요의 내용
출연자 명단

인사말씀



경포 호수의 맑은물과 함께 자연경관이 수려한 동해안의 고도인 이곳 강릉에서 제26회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본 대회는 사라져가는 전통 민속을 발굴·전승시키고 조상들이 남긴 문화유산을 널리 소개하여 지역 주민들에게는 애향심을 심어주었고, 국민 모두에게는 뿌리깊은 문화민족의 긍지를 심어주었습니다.

이번 대회에 출연하는 본도 대표팀은 “예천공처농요”로서 낙동강 중류 지방인 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의 평야지대에서 옛부터 불리어 오던 농경노동요이며, 오랜 농사생활에서 오는 피로를 잊고 풍년을 기약하는 소박한 농민의 정성이 담긴 흥겨운 노래에 해학적인 동작이 곁들여진 민요입니다.

또한 이 노래에서는 우리 도민의 순박한 기질을 엿볼 수 있으며, 농촌의 생활상이 잘 표현된 작품입니다.

회를 거듭하는 본 대회가 전통문화의 보급과 민족문화의 창달을 위한 더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행사를 위하여 애쓰신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1985년 9월 19일

경상북도지사 이 상 희

1. 마을의 개관



본 농요의 전승지인 풍양면 공덕동은 경상북도의 북단에 위치하고 있는 예천군 소재지에서 남서쪽으로 32km 떨어진 농촌 마을이다.

이 민요의 자생 전승지인 공덕동은 낙동강변에 자리잡고 있는 50여 가구의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지금은 물걱정 없는 복지마을로 변했으나 지난 60년대 까지만 해도 가뭄으로 많은 시련을 겪은 곳이다.

500여년 전에 개척된 이 마을에서 지금의 농요가 발생한 것이 언제인지 그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마을 사람들이 단합하여 이러한 자연의 시련과 싸우면서 구전으로 50년대까지 불리어지다가 농사 방법의 개선으로 인멸되었던 것을 마지막까지 참여했던 전승자 양삼억(76세), 이용식(78세) 두 사람이 노랫말과 가락을 기억하고 있어 오늘에 복원된 것이다.

이 농요의 구성원은 20대에서 80대에 이르는 50명 전원이 한 마을 사람으로 동작과 노래가 아주 잘 맞으며 위의 두 전승자가 80을 바라보는 고령임에도 선소리를 맡고 있어 향토 민속문화 발전에 기여 하는바가 크다고 하겠다.

2. 농요의 특징

이 농요는 다른 이웃 지방의 농요와 혼합되지 않고, 이마을에서만 전해 오는 순수성과 소박성이 그 두드러진 특성으로 모심기 노래로부터 타작소리에 이르기까지 고루 전승되고 있다. 특히, 논매기소리는 전통적인 민요의 짜임새 즉, 진사대, 짜른사대, 어루사대, 헛소리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관소리의 진양 중모리 등 4단계 창법을 방불케 하는 것이 있다. 또한 이 농요의 뒷소리는 타 지방 민요의 뒷소리와는 완전히 다르게 모음 아·어·오·우·으·이·애가 최대 개구음에서 최소 개구음으로 순차적으로 불려지고 있으며 여음이 긴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3. 농요의 순서

- ㉠ 모심기 노래
- ㉡ 논매기 소리
- ㉢ 걸채소리
- ㉣ 타작소리

※ 논매기 소리는 ‘진사대’ ‘짜른사대’ ‘어루사대’ ‘헛소리’로 나누어져 있고, 헛소리도 ‘긴헛소리’ ‘짜른헛소리’로 되어 있다.

※ 논매기는 보통 ‘초벌’ ‘두벌’ ‘세벌매기’가 있으나 대개 두벌매기로 끝나치고, 초벌 때는 소리를 하지 않고, 두벌매기 때에만 소리를 한다. 이 농요는 주기가 동한 일꾼들이 상머슴을 위로하고, 농사의 고달픔을 씻어버리기 위해 부르는 데 간혹 풍년을 구가하거나 주인의 요청으로 부르기도 한다.

4. 농요의 내용

가. 모심기 노래

아원 래래래이이여송아

아원 래래래이이여송아

모야모야 노랑모야 니가커서 시집가니 아원 래래래이이여송아

너도 정녕 좋거니와 만인간도 반겨한다. 아원 래래래이이여송아

오뉴월에 시집가서 칠팔월에 열매맺어 아원 래래래이이여송아

구시월에 추수등장 연연재생 너로구나. 아원 래래래이이여송아



※ 이 노래는 벌모를 심을 때 부르는 노래로서 ‘아원’은 ‘又願’, ‘래래래이이여송아’는 ‘來來來 李如松’의 표현이라고 하나 확실치 않다.

나. 논매기 노래



① 진사대

우와아 이후후이후후 에헤헤헤헤에 아하아 아아오후 우우위어잇 우우우위우 에이
에라보자아오우

아워오호 오오호우워 에헤이 아워허 어허오호 아해이 어와 우리 농부들아 이내말씀
들어보소 누구누구 모였든가 등 넘어 이도령과 길건너 박도령도 일등 농부가 다모였네
에헤에헤이요.

에헤에헤헤헤헤에.....

경기도라 삼각산은 한강이 둘러있고 경상도라 태백산은 낙동강 칠백리가 구비구비 흘러
가네 에헤 에헤에이요.

에헤에헤헤헤헤에.....

신릉씨의 농사보다 바다같은 이 논베미 모를 심어 장잎이 훨훨 나갑니다. 에헤에
헤이요.

에헤에헤헤헤헤에.....

※ ‘진사대’란 말은 ‘긴사대’의 방언인 듯하고, 사대는 소리인지 사설의 표현인지
는 분명치 않으나 이 지방에서는 소리의 구분을 ‘사대’라고 쓰고 있다. 논매기를 시
작할 때에 ‘진사대’ 부터 불리워지며 여음이 매우 긴 것이 특징이다.

② 짜른사대



에헤이이어이이 얼싸아이이오
 에헤이이어이이 얼싸아이이오
 사신행차 바쁜길에 중간참이 늦어간다 에헤이이어이이.....
 정월이라 보름날에 망월하는 소년들아 에헤이이어이이.....
 망월도 하련마는 부모 봉양이 늦어간다 에헤이이어이이.....
 옥창앵도 붉었으니 원정부지 이들일세 에헤이이어이이.....

※ ‘짜른사대’는 ‘짧은 사대’의 표현이며 ‘진사대’보다 약간 여흥이 더해 있다. 이곳에서는 소리와 일 잘하는 사람을 ‘참새’라고 부르며 논둑 양쪽 끝에 배치되어 논매기를 감독하는데 잘 못하는 일꾼이 발견되면 집으로 쫓아 버리는 풍습이 있다.

③ 어루사대

에헤이루사 허 디용 에헤이루사 허 디용 해는 지고 저문날에 에헤이루사.....
 춤잘추는 학두름은 에헤이루사..... 춤추자고 날찾는가 에헤이루사.....
 술잘먹는 이태백은 에헤이루사..... 술먹자고 날찾는가 에헤이루사.....
 말잘하는 앵무새는 에헤이루사..... 말하자고 날찾는가 에헤이루사.....

※ ‘어루사대’는 ‘어울이다’의 뜻이 아닌가 여겨지며 논매기의 마무리 단계에서 부르는 것으로 소리의 높낮이가 무척 빠르고 흥겹다. 이때 논매기의 형태는 반달형이 되며 짜른사대 때와 같이 소리나 일을 잘못하는 일꾼이 있으면 집으로 내쫓는다.

④ 햇소리



● 긴 햇소리

웅해,	웅해
에이오해야,	웅해
해는지고 저문날에,	웅해
우리할일 태산일세,	웅해
남은일을 다해보세,	웅해

● 째른햇소리

윙해,	윙해
어서어서 싹을 싹세,	윙해
예천아군수는 부루싹싸고,	윙해
상주의 목사는 천엽싹싸고,	윙해
안동의 부사는 건다래싹을,	윙해
얼씨구나 잘도한다 윙해,	윙해

※ 이 '사대'는 전체 논매기소리 중 가장 흥겹고 신나는 사대로서 일꾼들은 몽두리 춤으로 원을 그리며 싹을 싹게 되는데 발로 논을 휘 삶아 버린다.



다. 걸채소리

〈술렁수, 신관 사또를
잘 모시렸다〉

옹해야, 옹해야,
영역은, 옹해야,
소리타고, 옹해야
맹호연은, 옹해야,
나귀타고, 옹해야
이태백은, 옹해야,
고래타고, 옹해야
적송자는, 옹해야,
학을타고, 옹해야
일대장강, 옹해야,
저어부는, 옹해야

일엽편주, 옹해야, 올라타고, 옹해야
만경창과, 옹해야, 깊은물에, 옹해야
둥기둥실, 옹해야, 노니는데, 옹해야
우리고을, 옹해야, 사또님은, 옹해야
걸채타고, 옹해야, 놀아보세, 옹해야

※ 논을 다 메고 집으로 오면서 부르는 소리로서 상머슴을 걸채에 태우고, 젓머슴은 지개걸채에 태우고 흥겹게 돌아온다. ‘술렁수’는 ‘쉬엄쉬엄’ 하자는 뜻이 있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술렁’은 ‘수령’, ‘수’는 ‘쉬’라고도 하며 수령이 당도할 때 백성에게 ‘술렁쉬’ 하면서 조용히 길을 비키라는 뜻이 있다고 한다.

라. 타작소리

넘어간다 휘이야
보우세 휘이야
보우세 휘이야
보우세 나간다 휘이야
걸었나, 걸었나
휘이야 보우세
보우세 휘이야
보우세 휘이야 나간다
※ 타작소리의 사설
은 다섯 마디로 구성
되어 있다.



예천공처농요 출연자 명단

배	역	성	명	년	령	배	역	성	명	년	령		
농	요	기	양	주	석	35	뒷	소	리	이	문	환	40
농		기	유	상	철	27	"	"	"	황	동	주	33
상		쇠	유	경	희	63	"	"	"	유	금	연	47
중		쇠	김	정	섭	61	"	"	"	최	윤	환	49
	징		유	종	구	61	"	"	"	양	도	석	65
	복		조	현	광	53	"	"	"	유	경	남	47
장		구	김	영	희	51	끝		뚜	유	영	록	50
선		소	양	삼	억	76	뒷	소	리	양	재	일	69
선	소리	후보	이	용	식	77	"	"	"	정	팔	선	67
선		소	황	기	석	45	"	"	"	고	병	환	49
농		감	양	인	석	71	"	"	"	양	용	포	53
상		슴	정	성	도	53	"	"	"	이	채	우	52
젓		슴	강	성	만	49	"	"	"	전	동	욱	66
모		잡	오	경	택	54	"	"	"	김	성	운	74
걸		채	황	기	태	42	"	"	"	권	영	덕	45
"		"	유	한	근	45	"	"	"	이	정	우	47
"		"	유	상	열	37	"	"	"	정	의	관	47
"		"	이	장	춘	47	"	"	"	김	주	호	67
뒷		소	황	현	모	52	"	"	"	전	상	현	68
"		"	고	주	선	69	"	"	"	최	정	달	49
"		"	윤	귀	오	50	"	"	"	양	영	석	45
"		"	조	현	오	49	"	"	"	김	재	근	50
"		"	조	재	선	37	"	"	"	김	학	현	47
"		"	조	현	필	54	"	"	"	최	춘	달	44
"		"	조	현	각	60	"	"	"	권	오	근	62

- 전 승 자 : 양 삼 억 · 이 용 식
- 고 증 및 지 도 : 최 정 여 (계 명 대 학 교 교 수)
- 권 영 철 (효 성 여 자 대 학 교 교 수)
- 김 택 규 (영 남 대 학 교 교 수)
- 성 병 희 (안 동 대 학 교 교 수)
- 송 방 송 (영 남 대 학 교 교 수)